

예배 및 모임안내

2025-38 2025년 9월 21일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28	10. 05	10. 12
대 표 기 도	정환영 형제	이상호 목사	장래황 형제
성 경 봉 독	정환영 형제	김정규 형제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새학기 기도회 - 9월29(월)~10월4일(토) 오전 8시, 음대 강의실에서 모입니다.
4. 추수 감사절 - 10월 5일(주일)에 드립니다(추석-10월6일)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소연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9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42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윤선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삼상 14 : 16 - 20(구p429) (1.Samuel 14:16~20)	이윤선 성도
특별찬송 Sonderlied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석류나무 밑의 교훈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첫째, 무지에서 생깁니다. 저도 한때 저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미숙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숙한 생각입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미숙한 생각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오히려 다양함을 맛보게 하는 축복된 선물입니다. 다른 것은 서로의 다른 점을 보충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의 관계는 놀랍게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서로를 고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고쳐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변화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법칙 / 강준민 목사(LA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현실적으로 안 됨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부분을 나누세요.
2. 내 삶에서 “행동”으로 할 것은 무엇인가요?